

조선대 총장 선거 후보 최종 8명 등록

첫 재선 총장이냐 새 총장 탄생이냐

“최초의 재선 총장 탄생인가,
교체인가”

조선대학교 제14대 총장 선거
가 지난 26일 8명의 후보 등록 마
감과 함께 본격화됐다.

조선대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
(위원장 이원구·이하 총추위)가
입후보자 등록을 받은 결과 전호
종(57·외대 병리학), 박대환(56·
외국어대 독일어과), 임동윤(58·
외대 약리학), 강동완(57·치대
보철과), 서재홍(62·외대 병리
학), 김택현(59·공대 계산계공
학과), 이계원(53·경상대 경영학
부), 조범준(58·전자정보공과대
화 컴퓨터공학부) 교수(이상 등
록 순) 등 8명이 등록했다.

전호종 총장이 장고 끝에 재선
에 도전하면서, 이번 조선대 총장
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▲간접선
거에서의 전호종 총장에 대한 지
지율 ▲간접선거(3명 선출)를 통
과해 전 총장에 대적할 수 있는
후보군 ▲선선 이후, 직접선거에
서 후보들간 합종연횡 등이다.

후보 중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전
호종 총장은 올해 교육역량강화
사업이 탈락함에 따라 경쟁자들
로부터 실적 부진에 대한 공격을
받고 있다. 이에 전 총장은 재임
중 역대 최대액인 2034억의 국책
사업 획득 실적으로 맞서고 있으
며, 총장 재직 중 임시이사 체제를
마감하고 학교 정상화를 이뤘다
는 점에서 총동창회와 총학생회
등 대내외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
다.

탄탄한 지지기반을 자랑하는

강동완 교수는 지역 거점 대학으
로서의 조선대 역량을 아시아 차
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체적
인 비전을 제시하며 전 총장을 바
짝 주격하는 양상이다.

경영마인드를 갖춘 가장 깊은
후보로서 교직원들의 눈길을 끌
고 있는 이계원 교수는 ‘CEO형
총장’·‘지역과 함께하는 대학’을
기치로 네거티브 없는 선거를 내^{세우면서 급부상하고 있다.}

박대환 교수와 서재홍 교수도
간접선거 통과 가능 후보로 평가
받고 있다.

이와 함께 조범준·임동윤·김
택현 교수 등은 이번 주 초반 선
거 활동에서 어느 정도의 지지 세
력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간접선
거 결과가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
된다.

이번 선거는 최초의 재선 도전
자가 생긴 만큼 변수가 많아진데
다 유권자들의 의중도 파악하기
힘든 상황이어서 각 후보들이 고
전하고 있다.

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변화일
(민주당) 의원실은 교육과학기술부
로부터 제공받은 2010회계연도 사립
대 결산현황을 분석한 결과 198개 사
립대(전문대 제외)의 누적 적립금은
7조6806억원으로 전년대비 8.4%인
5392억원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.

이 가운데 사립대들이 지난해 1년
간 추가 적립한 적립금은 1조 3348억
원에 이르고, 이 가운데 46.7%인
6234억원이 등록금에서 적립된 것으
로 나타났다. 대학들이 곳곳에 돈을
쌓아두고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
화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가운
데 대학들이 등록금을 적립금으로 전



이주노동자 치과치료

28일 오후 서구 치평동 무각사에서 열린 ‘이주민을 위한 법률 및 의료상담’에서 전남 대 치과병원 의료진이 스리랑카, 미얀마 출신 지역 이주노동자들을 진료하고 있다.

/나명주기자 mjna@kwangju.co.kr

“사립대 적립금 절반 등록금서 조성”

변재일 민주당 의원 “작년 1조3348억 중 6234억”

한한 구체적인 실태가 공개되기는 처
음이다. 올해부터 대학회계가 등록금
회계와 기금(적립금) 회계로 분리됨
에 따라 등록금이 적립금으로 전환된
규모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. 이에 앞
서 교과부가 대학알리미를 통해 공시
한 4년제 사립대와 전문대학의 누적
적립금은 10조903억원으로 사상처
음으로 10조원을 돌파했다.

교과부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 적
립금 재원의 46.7%가 등록금인 반면
법인 전입금은 4.54%인 605억원, 기
부금은 15.37%인 2천51억원에 그쳐
사립대들이 적립금을 쓰는 가장 큰
재원이 등록금이라는 사실이 확인됐
다. 등록금 회계를 이용한 적립금 조
성 규모가 큰 대학은 흥인대, 연세대,
계명대, 수원대, 청주대 등이었다.
/박지경기자 jkpark@yna.co.kr

구속 재판 줄었다

구속률 11.8%…역대 최저

지난해 형사 피고인 10명 가운데 9
명 가량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
것으로 나타났다.

28일 대법원이 발간한 ‘2011년 사
법연감’에 따르면 지난해 26만3425명
의 1심 형사사건 피고인 가운데 구속
자는 11.8%인 3만1천15명으로 역대
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.

2000년 46.1%에 달했던 구속자 비
율은 2001년 45.3%, 2002년 41.4%,
2003년 37.7%, 2004년 31.1%, 2005
년 26.2%, 2006년 20.3%, 2007년 16.
9%, 2008년 14.4%, 2009년 14.0%로
해마다 하향곡선을 그렸다.

이 같은 현상은 유무죄를 수사 과
정이 아니라 법정에서 가리고 형사
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줘
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와 불구속 수
사 원칙이 강화된데 따른 것으로 분
석된다.

/연합뉴스

오늘 날씨

해뜰 06시 02분 해질 19시 04분

달뜰 05시 56분 달질 18시 50분

건강관리 유의

당분간 낮기온 30℃ 유통고 기
온차가 크다.

광 주	구름많음	23/33 ℃
목 포	구름많음	23/30 ℃
여 수	구름많음	23/29 ℃
나 주	구름많음	23/33 ℃
완 도	구름많음	22/30 ℃
구	구름많음	22/33 ℃
강	구름많음	22/30 ℃
진	구름많음	22/30 ℃
해	구름많음	22/30 ℃
남	구름많음	22/32 ℃
홍	구름많음	23/33 ℃
천	구름많음	22/31 ℃
영	구름많음	23/32 ℃
광	구름많음	24/32 ℃
주	구름많음	23/30 ℃
전	구름많음	23/29 ℃
군	구름많음	23/28 ℃
산	구름많음	23/28 ℃
남	구름많음	23/29 ℃
원	구름많음	23/28 ℃
혹	구름많음	23/28 ℃

〈오전〉 바다	풍향	파고	자외선지수	식중독지수	불쾌지수
서해 남부 일비단	동~남동	0.5~1.0m	0.5	0.5	0.5
남해 서부 일비단	북동~동	0.5~1.5m	1.0~2.0m	1.0~2.0m	1.0~2.0m

〈오후〉 바다	풍향	파고	밀물	썰물
서해 남부 일비단	동~남동	0.5~1.0m	02:05	07:26
남해 서부 일비단	북동~동	0.5~1.5m	14:17	19:38

◇주간날씨	기상안내전화
날짜	국번없이 131(광주지방기상청)
날씨	30(화)
최저/최고	23/32
날씨	31(수)
최저/최고	24/32
날씨	9/1(목)
최저/최고	23/32
날씨	2(금)
최저/최고	23/29
날씨	3(토)
최저/최고	22/28
날씨	4(일)
최저/최고	22/28

늦더위...광주 어제 33도

광주·전남 지역에 28일 폭염주의
보가 내려진 가운데 늦더위가 이번
주 내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보됐
다.

광주지방기상청은 “광주의 경우
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낮 최고 기
온이 32도, 여수는 31일과 다음달 1

일 각각 29도를 기록 유지하는 등 무
더울 것”이라고 밝혔다. 전주·광주·전
남은 30일 33도까지 치솟을 것으로
전망됐다.

앞서 광주지방기상청은 28일 정오

를 기해 나주, 곡성, 구례, 화순, 함평,
영광 등 전남 6개 시·군과 광주지역에
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.

이날 광주·전남의 낮 최고기온은
광주 33도를 비롯해 28~33도를 기
록했다.

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“다음

주 내내 기온은 30일 33도까지 치솟을
것으로 전망됐다.”며 “강수량은 평년(5~14mm) 보다 적겠
다”고 내다봤다.

/이종행기자 golee@kwangju.co.kr

“추석 명절맞이 보청기 무료점검 안내”

계절 변화에 따라 보청기 A/S 받으세요



국제보청기

www.kjhr.com

* 일시 : 2011년 9월 1일 ~ 9월 2일 (오전10시~오후6시)

* 장소 : 국제보청기 본점 (광주시 동구 서석동 81-1 동구청오거리)

* 접수 : 본점 및 각지사 (대기시간 단축을 위하여 전화 접수도 받습니다)

본점 062-227-9940 | 서울점 02-765-9940 | 순천점 061-752-9940
충장점 062-227-9970 | 목포점 061-262-9200 | 장흥점 080-222-9975

古家 고향의 맛-

고가 한식 뷔페 오픈

일시 중단하였던 한식 뷔페를 다시 차리게 되었습니다.
무더운 여름날의 잊어버린 입맛을 찾아 드릴

한식 뷔페에서 맛과 정성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.
많은 이용 부탁 드립니다.

약탕기 홍삼 삼계탕

홍삼 외 15가지의 엄선된 약재와 견과류를 첨가한, 차별화 된
진한 육수의 힘을 살린 홍삼 삼계탕입니다.

홍삼은? 한의학적으로 가장 오랜 약용 역사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
우수한 건강 보조식품입니다.

고가 약오리탕

한/식/뷔/페
6,000원

약탕기 홍삼 삼계탕 13,000원

약오리탕

반마리 20,000원

1마리 40,000원

토종닭 백숙 45,000원

고가한식뷔페

예약문의
062)226-8254